

## 백승근 대광위원장, “달서구 상화로 혼잡도로 개선 적극 지원” 강조 - 15일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기공식 참석...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-

-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5일(화) 대구 ‘달서구 상화로 입체화’ 사업의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였다.
  - ‘달서구 상화로 입체화’ 사업은 상습 교통혼잡 구간인 달서구 유천동~상인동 구간에 길이 4.14km, 폭 20m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,
  -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이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되고, 지상 교통량은 약 56% 줄어들어 통행속도가 기존 28km/h에서 38km/h로 약 35%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또한, 상화로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주변 산업단지 물류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백 위원장은 “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은 대구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산업단지의 물류비용 감소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”이라면서,
  - “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,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022. 3. 15.

국토교통부 대변인